“대유행 막으려면 병원내·가족간 감염 고리 끊어야”

3차 감염 모두 병원 내…종결 대책 필요

일반인 밀접 접촉 차단 설득 근거 제시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일 기준으로 모두 30명이 됐다. 이 중에서 2차 감염자가 27명이며, 3차 감염자는 3명이다.

우려했던 3차 감염자는 환자 3명 모두 지역사회 감염(병원 밖 감염)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감염(병원 안 감염)인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3차 감염자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면 자칫 ‘대유행(Pandemic)’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로의 대규모 전파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의 근거로는 현재의 메르스 감염 상황을 신종플루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대유행 당시와 비교해볼 때 환자 발생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 제시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방역대책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은 밀접 접촉자를 최대한 찾아내고 병원 또는 가정 내 2차, 3차 감염의 고리를 끊는 데 방역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지영 건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1차 목표로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의료기관에 퍼지는 것을 막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호흡기 환자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역대책은 다른 의료기관에 퍼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방역 당국의 마지막 노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만성병역학)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논하기에 앞서 일단은 병원 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고, 종결시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예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 어려운 가족 내 감염이나 병원 내 감염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밀접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큰 변화인 만큼 이들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전파확률, 전파 가능성)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종플루와 사스 당시의 대유행 공식에 비춰볼 때 메르스는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확산이 없어 지역사회 대유행을 점치기는 어렵다”면서 “우선 병원 내 감염, 가족 간 감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메르스의 가족 간 감염률은 4%였다.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과 각종 논문, 사스와 신종플루의 대유행 공식에 맞춰 예상해볼 때 메르스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거나 사스처럼 통제 불능인 상태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밀접접촉자에 의한 병원 내 감염 고리를 끊어야만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슈퍼전파 원인은 감염 통제 조치 미흡”

사이언스誌, 한국 전파 사례 다뤄…세계 과학계 촉각

과학학술지 사이언스가 2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파 사례를 다뤘다.

사이언스는 “‘슈퍼전파사건’이 한국에 메르스의 폭발을 가져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에서 1명의 첫 감염이 유례없는 다수의 2차 감염으로 이어진 데 대한 과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했다.

독일 본 대학의 바이러스학자인 크리스티안 드로슈텐은 “입원한 직후 증상이 악화하는 질병 초기에 환자가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분비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초기에 바이러스가 전파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번처럼 환자 1명이 20명을 훌쩍 넘는 의료진과 환자를 감염시킨 전례는 없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메르스를 담당하는 피터 벤 엠바렉은 “이런 ‘슈퍼전파’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병원이 감염 통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에서 초기 3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벤 엠바렉은 이어 “첫 환자가 다른 계통의 바이러스를 보유했거나 한국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메르스에 걸리기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심각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스 확산방지 만전을”

朴대통령 긴급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메르스 확산 방지에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또 국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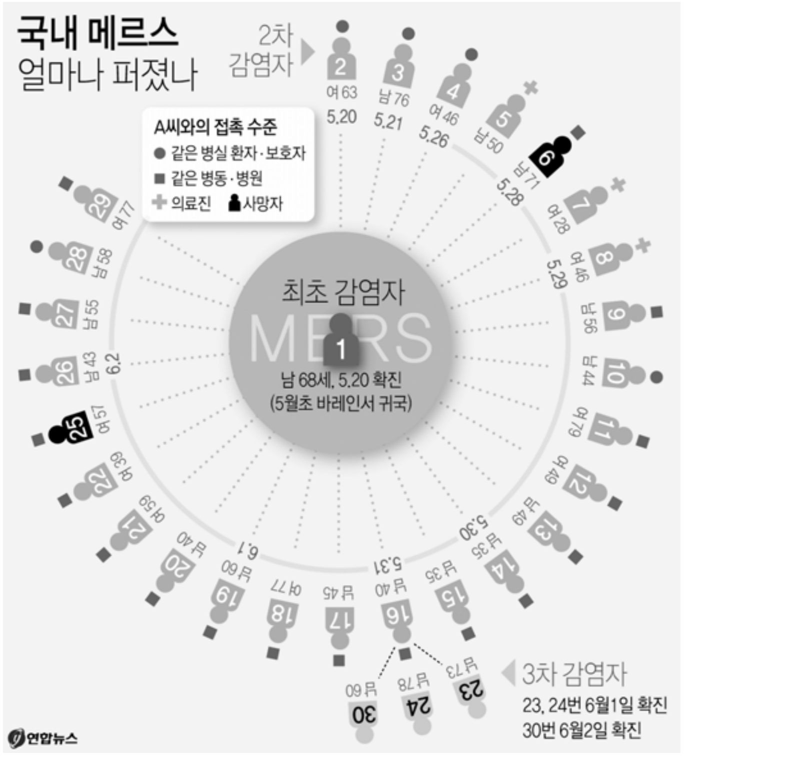
박 대통령은 “첫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 2주 동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두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더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회의는 메르스 환자 사망 및 3차 감염자 발생 등 메르스 확산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초기대응 실패 등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진단을 한 후에 그 내용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발표하고, 또 그런 TF를 통해 지금 문제점의 진원지, 발생 경로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분석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감염병 관리 예산 대폭 삭감 했다

4개 부처 5년간 480억 공동 기획 추진…올해 20억만 반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위기 감시와 대응기반을 마련키 위해 관련 부처 공동기획으로 추진했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6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열어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 과제로 11개를 심의해 확정했다. 이들 과제 중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 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미래부가 함께 기획해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 인간 감염병 분야를 맡고, 농식품부는 가축 감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감염병, 미래부는 감염병 변이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 등 원천기술 개발을 맡아 진행하기로 협의가 됐다. 4개 부처는 사업 예산으로 올해 121억원을 포함, 5년 간 48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R&D 투자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농식품부, 환경부, 미래부 등 3개 부처가 낸 과제 예산안은 빠져버렸고, 복지부의 제안 내용만 받아들여져 올 예산은 2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가 부처별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대규모 사업이 한 부처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일반 사업으로 그 의미와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이 사업은 올해 복지부만 예산을 배정받게 돼 내년이 되더라도 당초 계획처럼 나머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 522.3㎡(158.15평)
연 면 적 : 2,073.86㎡(627.96평)
층 수 :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율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 · 성범죄 / 개인회생 · 파산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